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www.PapaCambridge.com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May/June 2009

2 hours

Additional Materials: Answer Booklet/Paper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If you have been given an Answer Booklet,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cover of the Booklet.

Write your Centre number, candidate number and name on all the work you hand in.

Write in dark blue or black pen.

Do not use staples, paper clips, highlighters, glue or correction fluid.

Answer **all** question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punctuation, spelling and handwriting.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fasten all your work securely together.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in brackets [] at the end of each question or part question.

* 4 0 9 3 1 6 3 9 6 6 *

This document consists of **9** printed pages and **3** blank pages.



Part 1

Text 1을 주의 깊게 읽고 Question 1에 모두 답하십시오.

Text 1

아래 글은 윤홍길의 <장마> 중의 일부분입니다. 625 전쟁중에 화자의 외가집 식구들은 서울에서 피난왔다가 할머니의 배려로 화자의 친가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국군으로 입대한 외삼촌의 전사통지서를 받은 외할머니와 북한군을 따라 도피한 삼촌을 걱정하는 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통이를 꾸러 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 번 없이 의 좋게 지내 왔었다. 수복이 되어 환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북한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곁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두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산등성이에 푹푹 꽂이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바위틈에 숨은 빨갱이마저 다 쓸어가거라! 나무 틈새에 엮드린 빨갱이 솟덩이같이 싹싹 태워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옹지! 하늘님 고오맙습니다!”

“저 늙다리 예뻐네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나?”

그러자 안방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악의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여기가 지금 누구 집인줄 알고 저 지랄이라, 지랄이?”

옆에서 흔들려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보자보자 하니까 참말로 눈뜰시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이 거기를 두고 하는 말이고만. 올테 갈데 없는 신세 하도 불쌍해서 들어앉혀 놓으니까 이제는 아이도 어른도 몰라보고 갖은 난리를 다 부리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악한 맘을 먹으면은 거기한테 날벼락이 내리는 법이여.”

당장 메어꽃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슬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훈계 조가 되었다.

“아아니, 거기가 그런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은가? 어림 반푼도 없는 소리 시작도 말어. 인명은 재천이랬다고, 다아 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여. 그리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부모 죄여.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자식놈을 앞세워 놓고는 뒤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다아 감당하게 만든 거여. 애시당초 자기 팔자 소관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말 것이 없어. 나잇살이 저만치 예순줄에 앓어 있으면 좀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지.”

30

35

“그러,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들놈 먼저 보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복을 휘여지게 훔어지고 나와서 아들 농사를 그 따위로 지었다냐?”

하고 외할머니도 양갈지게 쏘아붙였다.

“우리 아들은 꼬덕도 없다. 꼬덕도 없어. 무슨 일이 생겨야만 속이 시원할 테지만 우리 아들은 소나기 새도 요리조리 뚫고 다닐 아이여.”

40

“어따 그만들 하라니까요!”

하고 아버지가 짜증을 부렸다. 아까부터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허벅지를 자꾸만 집어뜯고 있었다.

“야, 애비야. 니 동생 어서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예뻐네를 내가 좀 혼내줬기로 너까지 한통속이 되어 목매달 게 뭐냐. 너한테는 장모인지 밋인지 모르지만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꼴 못 본다.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나갈 테니 알아서 해라.”

45

“나갈란다! 그러잖아도 더럽고 창피스러워서 나갈란다! 차라리 길가에서 굶어 죽는 게 낫지 이런 집서는 더 있으래도 안 있을란다! 이런 빨갱이 집”

외할머니의 격한 음성이 갑자기 푹 멎었다.

50

외할머니의 말 한 마디가 집안에 던진 파문은 의외로 심각했다. 여태까지 삼촌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치안대와 경찰로부터 시달림을 당해 오면서 가족들 간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말로 목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다름아닌 발설 당사자였다. 외할머니는 구태여 변명을 늘어놓진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할머니가 무슨 못 들을 소리를 해도 꼭 참고 견디는 것으로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었다.

55

<중략>

기다리던 삼촌 대신 집으로 기어들어온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는 삼촌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는 것을 구렁이를 보고 깨달았고, 그동안의 기대와 희망이 무너진 끝에 정신을 놓았던 것이었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삼촌이 죽어 돌아온 것처럼 대접한 일,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간혹 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 전에 할머니하고 한판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65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짝 떴었다.

75

“사돈도 별 말씀을 다..... .”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애한테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돈이 대신 맡았구라.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스러웠을까.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라.”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 놓았다.

80

“탈없이 잘 가거나 했는지 모르겠구먼요.”

“염려 마시라니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하면서 사돈댁 터주 노릇을 특특이 하고 있을 것어요.”

85

- 1 Text 1 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모두 답하십시오. 답할 때에는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 (질문 끝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문항당 점수를 의미합니다. 답안에 사용된 언어구사력이나 정확성에 따라 5 점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총점은 20+5=25 점입니다.)
- (a) 6줄에서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1]
- (b) 8줄에서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한 근심거리’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2]
- (c) 10 줄의 ‘복장을 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2]
- (d) 12 줄에서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설명하십시오. [1]
- (e) 14 줄에서 ‘빨갱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지 쓰십시오. [1]
- (f) 18 줄에서 ‘악의를 그득 담은 얼굴’이란 무엇이며 할머니가 그런 얼굴을 한 까닭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십시오. [2]
- (g) 23 줄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에서 ‘은혜’와 원수’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2]
- (h) 34 줄에서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2]
- (i) 37 줄에서 외할머니가 친할머니에게 ‘아들 농사를 그 따위로 지었다’는 것을 무엇을 두고 한 말인지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1]
- (j) 39 줄에서 ‘무슨 일’이란 무엇을 가르키는 것인지 자신의 말로 설명하십시오. [1]
- (k) 42-3 줄에서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허벅지를 자꾸만 집어뜯은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1]
- (l) 51 줄에서 ‘파문’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파문이 되었는지 설명하십시오. [2]
- (m) 할머니가 구렁이를 보고 까무러친 것과 깨어난 후 안심한 듯 보인 까닭은 무엇

Part 2

Text 2 를 주의 깊게 읽고 Question 2 에 답하십시오.

Text 2

이 글은 황순원의 <학> 중 일부입니다. 625 전쟁중에 치안대원으로 고향에 오게 된 성삼이는 어린시절의 동네친구 덕재가 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임시 치안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에 뽕뽕 묶여 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하는 젊은이라, 가까이 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랐다. 바로 어려서 단짝 동무였던 덕재가 아니냐.

같이 온 치안 대원에게 어찌된 일이나고 물었다. 농민 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농민대 지금 자기 집에 잠복해 있는 걸 붙들어 왔다는 것이다. 5

성삼이는 거기 봉당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덕재를 청단까지 호송하기로 되었다. 치안 대원 청년 하나가 데리고 가기로 됐다. 성삼이가 다 탄 담배 꼬투리에서 새로 담뱃불을 댕겨 가지고 일어섰다.

“이 자식은 내가 데리구 가지요.” 10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쪽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동구 밖을 벗어났다.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 고개는 광복 이년 전 성삼이가 삼팔 이남 천태 부근으로 이사가기까지 덕재와 더불어 늘 풀 베러 넘나들던 고개다.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15

“이 자식아, 사람 그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그제야 덕재가 힐끗 이쪽을 바라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고개를 이리로 돌린다.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 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 20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은. 그러나,

“농민 동맹 부위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았구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고 잠복해 있는 거지?” 25

덕재는 말이 없다.

“바른 대로 말해라. 무슨 사명을 띠고 숨어 있었냐?”

그냥 덕재는 잠잠히 걷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풀리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 한 번 낫잡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성삼이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변명은 소용없다. 영락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그저 여기서 바른 대로 말이나 해 봐라.”

덕재는 그냥 외면한 채,

“변명은 하려고도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데다가 부지런하다고 해서 농민 동맹 부위원장 됐든 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구, 나는 예나 이제나 땅 파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어,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앉아 누웠다. 벌써 한 반 년 된다.”

덕재 아버지는 홀아비로 덕재 하나만 데리고 늙어 오는 가난한 농사꾼이었다. 칠 년 전에 벌써 허리가 굽고 검버섯이 돋은 얼굴이었다.

“하여간 네가 피하지 않구 남아 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나두 피하려고 했었어. 이번에 이남서 쳐들어 오면 사내란 사낸 모조리 잡아 죽인다고 열일곱에서 마흔 살까지의 나이는 강제루 북으로 이동하게 됐었어. 할 수 없이 나두 아버질 업구라두 피난갈까 했지. 그랬드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 놓은 농사를 내버려두고 어딜 간단 말이나구. 그래 나만 민구 농삿일루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나마 내 손으로 감겨 드려야겠구, 사실 우리같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간댔자 별수 있는 것도 아니구...”

지난 유월 달에는 성삼이 편에서 피난을 갔었다. 밤에 몰래 아버지더러 피난갈 이야기를 했다. 그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삿일을 늘어 놓구 어디루 피난간단 말이나.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다. 남쪽 어느 낫설은 거리와 촌락을 헤매다니면서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에게 맡기고 나온 농삿일이었다. 다행히 그때나 이제나 자기네 식구들은 몸 성히들 있다.

고갯마루를 넘었다. 어느새 이번에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다. 가을 햇볕이 자꾸 이마에 따라왔다. 참 오늘 같은 날은 타작하기에 꼭 알맞은 날씨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쪽 벌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 떼였다. 소위 삼팔선 완충 지대가 되었던 이곳.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 동안에도 이들 학들만은 전대로 살고 있는 것이었다.

“애, 우리 학 사냥이나 한번 하구 가자.”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내 이걸루 올라미를 만들어 놀게 너 학을 몰아오너라.”

포승줄을 풀어 주더니, 어느새 성삼이는 잡풀 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건졌다. 잠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펄쩍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저만치서 성삼이가 핵 고개를 돌렸다.

“어이, 왜 바보같이 게 섰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 오너라!”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2 Text 1 과 Text 2 를 읽고 다음에 답하십시오.

Text 1 과 Text 2 를 다음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 (a) 중요 인물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6]
- (b) 갈등이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되었는가 [6]
- (c) 화해의 계기와 과정 [3]

답안의 내용에 따라 15 점까지 주어지며, 답안의 언어구사력에 따라 추가로 10 점이 주어집니다. (문체와 구성에 5 점, 언어의 정확성에 5 점)

